

# 干合理論의 응용

## - 臟腑를 중심으로 -

두리한의원<sup>1</sup> ·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한방생리학교실<sup>2</sup>  
조용주<sup>1</sup> · 김진주<sup>2</sup> \*

### The Application of Ganhap(干合) Theory -Focused on Viscera and Bowels-

Cho Yong-ju<sup>1</sup> · Kim Jin-ju<sup>2</sup> \*

<sup>1</sup>DooRee Korean Medicine Clinic

<sup>2</sup>Dept. of Oriental Physiology, College of Pharmacy,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pplication of Ganhap(干合) theory to human body.

**Methods** : We investigated 5 important sphincters along the alimentary tract (Larynx, Pharynx, Cardia, Pyrolus, Ileocecal portion) comparing with the function of Viscera and Bowels, also with Meridian and collateral theory.

**Results & Conclusions** : We can analyze 5 important sphincters along the alimentary tract into relationship of Ganhap. 1. Larynx are related with the combination of Byeong-Sin(丙辛合). 2. Pharynx are related with the combination of Jeong-Im(丁壬合). 3. The Cardia is related with the combination of Mu-Gyu(戊癸合). 4. The Pyrolus is related with the combination of Gap-Gi(甲己合). 5. Ileocecal portion is related with the combination of Eul-Gyeong(乙庚合).

**Key Words** : 5 important sphincters along the alimentary tract, Ganhap(干合)

## I. 序論

五行理論 중에서 干合理論은 시·공간적인 상호 관계성에 따른 오행변화의 규칙성을 표현한 대표적인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命理學<sup>1)</sup>에서 가장 많이 응용

하고 있지만 의학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素問五運行大論』<sup>2)</sup>에서 干合에 관해서 처음 언

“干合이란 甲과 己가 합하여 土가 되고, 乙과 庚이 합하여 金이 되고, 丙과 辛이 합하여 水가 되고, 丁과 壬이 합하여 木이 되며, 戊와 癸가 합하여 火가 됨을 말한다.”, 沈載烈編著, 增補淵海子平精解, 서울, 명문당, 1982, pp.18-21 : 干合은 夫婦관계로서 陽干이 陰干을 財物로 삼고 制伏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36 : 『素問五運行大論』“臣覽太始天元冊文, 丹天之氣, 經於牛女戊分, 蒼天之氣, 經於心尾己分, 蒼天之氣, 經於危室柳鬼, 素天之氣, 經於亢氏昂畢, 玄天之

\* 교신저자 : 김진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한방생리학교실.

E-mail: shdwer@khu.ac.kr Tel: 02-961-9437

접수일(2010년 1월 6일), 수정일(2010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18일)

1) 沈載烈編著. 命理正宗精解. 서울, 명문당, 1999. p.351 :

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二十八宿의 별자리를 보고 각각의 宿位가 五色의 기운으로 만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二十八宿를 天干에 배속하여 보면 각각의 五色 기운이 干合關係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체를 干合理論에 적용하여 설명한 것은 이미 『難經』<sup>3)</sup>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는 陰經과 陽經에 있어서 대응되는 五臟穴의 오행배속이 오행이론에서 干合關係를 이루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陽經의 井穴은 오행에서 金에 배속되는데 天干으로 적용하면 陽經이므로 陽干에 해당하는 庚金에 배속된다. 그리고 陰經의 井穴은 木에 배속되는데 陰經이므로 陰干에 해당하는 乙木에 배속된다. 그러므로 井穴을 중심으로 한 陰陽經은 서로 乙庚合金의 干合關係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榮俞經合穴 역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干合關係를 구성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醫學入門』<sup>4)</sup>에서도 干合을 언급하고 있는데 運氣學的인 관점에서 夫婦配合의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干合이론은 실제 생리·병리적인 설명을 할 때 상당히 관념적이고 난해하다. 五行理論의 가장 상징적인 圖解에 해당하는 河圖를 두고 본다면, 數配列과 이에 상응하는 天干이 각각의 사방과 중앙에서 오행의 단일 속성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이를 『素問五運行大論』에서 보이고 있는 天文의 영역으로 확대해석하게 되면<sup>5)</sup> 각 방위가

갖는 단순한 五行의 속성뿐만 아니라 夫婦配合에 해당하는 陽干과 陰干이 서로 干合作用도 역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命理學에서는 年·月·日·時의 四柱라고 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干合作用을 설명하였고, 『素問』과 『難經』, 『醫學入門』 등과 같은 의학적에서는 공간적인 관계성에 집중하여 설명하는 차이를 알 수 있다. 의학적인 입장에서 干合은, 공간적으로 복잡하게 위치하고 있는 臟腑經脈의 상호관계성을 이해하기에 용이하고 또한 이러한 상호관계성을 통해 다양한 생리·병리적 이해와 응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sup>6)</sup>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고 다양한 방면의 응용과 이해가 필요하다.

인체의 臟腑를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한 이론에 의해 발전되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臟腑의 表裏關係는 陰陽의 量的인 관계를 표현<sup>7)</sup>하고 있으며, 相通關係에 해당하는 開闔樞理論은 주로 經絡學的인 關係性을 가지고 三合關係를 형성하여 陰陽의 質的인 관계<sup>8)</sup>를 나타내고 있다. 즉 臟腑表裏와 臟腑相通의 관계는 精氣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한 精氣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臟腑의 干合配合는

오행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마치 河圖의 數配列과 數理的으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河圖는 二十八宿를 數理的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氣, 經於張翼婁胃.”  
3) 秦越人.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중화민국74. pp.265-266 : 『難經·64難』“陰井木, 陽井金, 陰榮火, 陽榮水, 陰俞土, 陽俞木, 陰經金, 陽經火, 陰合水, 陽合土. 陰陽皆不同, 其意何也.. 然, 是剛柔之事也, 陰井乙木, 陽井庚金. 陽井庚, 庚者乙之剛也, 陰井乙, 乙者庚之柔也. 乙爲木, 故言陰井木也, 庚爲金, 故言陽井金也. 餘皆倣此.”라고 했으니 五臟穴이 干合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보이고 있다.  
4)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58 : 『醫學入門運氣總論』“自其夫婦配合言之, 甲與巳合而化土, 乙與庚合而化金, 丙與辛合而化水, 丁與壬合而化木, 戊與癸合而化火. 故甲巳之歲, 土運統之, 乙庚之歲, 金運統之, 丙辛之歲, 水運統之, 丁壬之歲, 木運統之, 戊癸之歲, 火運統之, 此客運也.”  
5) 『天文類抄』(이순지. 天文類抄. 서울. 대유학당. 2006. pp.50-63.)와 『類經圖翼二十八宿說』(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대성문화사. 1988. pp.26-27.) 등에서 二十八宿를 크게 東靑龍 西白虎, 南朱雀, 北玄武의 각각 7宿로 나누어

6) 조용주. 五官과 干合. 東醫學會誌. 2000. 4(1). pp.105-114.  
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7 : 『素問六節藏象論』에서 “人迎一盛病在少陽, 二盛病在太陽, 三盛病在陽明, 四盛以上爲格陽, 寸口一盛病在厥陰, 二盛病在少陰, 三盛病在太陰, 四盛已上爲關陰, 人迎與寸口俱盛四倍以上爲關格, 關格之脈, 贏不能極於天地之精氣則死矣.”라고 했다. 여기서 寸口와 人迎이 각각 一盛일 때 厥陰과 少陽, 二盛일 때 少陰과 太陽, 三盛일 때 太陰과 陽明에 병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脈의 변화에 따른 관계는 臟腑表裏關係에 해당하며 이 관계는 量的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臟腑表裏關係는 陰陽의 量的인 關係性을 나타내고 있다.  
8) 조용주, 김진주. 영위와 기경맥의 상관성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7. 24(2). pp.1-17 : 이 논문에서 臟腑相通關係와 三合의 關係를 설명하고 있으며 臟腑相通을 통해 營衛조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臟腑相通은 營衛를 통해 陰陽의 清濁을 조절하기 위한 기능을 하므로 陰陽의 質的인 관계에 해당한다.

주로 精氣가 새로이 생성되고 역동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干合은 五行의 陽干이 陰干을 相克하는 관계를 통해 새로운 五行氣를 化氣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인체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은, 天氣의 호흡과 地味의 생산이 일어나 新生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陽干에 해당하는 六腑를 통해 유입된 음식은 陰干에 해당하는 五臟과 상호작용하여 五臟으로 유입되어 온 몸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五行理論으로 본다면 陽干이 陰干을 相克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한 相克作用에 뒤이어 化氣作用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에너지의 생성이 가장 활발한 곳을 중심으로 干合理論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五行理論 중에서 干合理論은 특히 중첩되고 복합적인 즉 두 가지 상황이나 공간이 맞닿는 경계에 있어서 主 또는 副로 상호작용하는 생리현상을 이해하는데 좋은 이론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생리현상이 일어나는 表裏 중에서, 특히 여러 臟腑가 서로 얽혀 만나면서 경계점이 많이 형성되고 에너지의 생성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裏에 해당하는 구강에서 항문에 이르는 점막부위를 중심으로 干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五行의 配屬物類 개념으로 『素問·五運行大論』의 공간적 배치와 비교·해석한다면 五臟과 六腑는 마치 각각의 오행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공간속의 별무리들과 같이 배속되며 이러한 臟腑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정한 기운이 교차하는 곳은 二十八宿의 중앙에서 펼쳐지는 五天<sup>9)</sup>으로 우리 몸에서는 역시 裏部에 해당한다. 각각의 교차 공간 중에서 특히 주요 괄약근이 존재하는 咽頭, 喉頭, 식도와 위가 만나는 賁門, 위와 소장인 幽門,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關門 등은 이곳을 중심으로 각각 기능과 역할 그리고 공간 등이 달라지므로 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裏部의 각 부위들은

9) 『素問·五運行大論』(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36.)에서 설명하고 있는 丹天, 黃今天, 蒼天, 素天, 玄天의 五天을 의미한다.

『難經』<sup>10)</sup>에서 설명하고 있는 七衝門과 상당히 중첩되고 있다. 衝門은 마치 天地가 기운을 交會하듯 자신을 구성하는 氣血과 外界의 非自己로 이루어진 氣味가 相衝하여 변화된 기운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곳이 된다. 공간적으로 衝門이 위치하는 구강에서 항문에 이르는 점막부위는 五臟六腑를 四方으로 두르고 있어 『素問·五運行大論』에서 설명하고 있는 五天이 사방으로 二十八宿를 두르고 있는 것과 유사한 공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衝門은 五行理論 중에서 이질적인 두 요소가 相克作用을 해서 化氣하게 하는 干合의 원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여기서는 干合理論을 이용하여 인체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裏部의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규칙적인 臟腑의 상관관계가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干合理論의 다양한 응용을 기대하는 바이다.

## II. 研究方法

1. 裏部의 점막에 해당하면서 주요 괄약근이 존재하는 咽頭, 喉頭, 賁門, 幽門, 關門의 5가지 구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2. 『醫學入門·運氣總論』<sup>11)</sup>을 기준으로 臟腑를 天干에 배속하였다.
3. 咽頭, 喉頭, 賁門, 幽門, 關門의 5가지 구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요 생리기능을 토대로 臟腑와 經脈의 생리적 특징을 검토하여 상호연관성과 규칙성을 고찰하였다.

10) 秦越人,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中華民國74, pp.210-212 : 『難經·44難』에서 “唇爲飛門, 齒爲戶門, 會厭爲吸門, 胃爲賁門, 太倉下口爲幽門, 大腸小腸會爲關門, 下極爲魄門, 故曰七衝門也”이라 했는데 이 부위는 소화기와 호흡기의 중요 移行部에 해당하며 특히 소화기에 집중되어 있다.

11)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63 : 『醫學入門·運氣總論』“明堂詩曰 甲膽乙肝丙小腸, 丁心戊胃己脾鄉, 庚屬大腸辛屬肺, 壬屬膀胱癸腎藏, 三焦亦向壬宮寄, 胞絡同歸入癸方. 詩言人乘天地壬之氣而生膀胱命門, 乘癸之氣而生腎, 乘甲之氣而生膽, 乘乙之氣而生肝, 乘丙之氣而生小腸, 乘丁之氣而生心, 乘戊之氣而生胃, 乘己之氣而生脾, 乘庚之氣而生大腸, 乘辛之氣而生肺, 此天干也. 地支, 亦然.”

### Ⅲ. 本論

우선 臟腑에 대한 天干의 配屬은 『醫學入門』과 마찬가지로 陰陽의 원리에 의해 陰干은 臟에 陽干은 腑에 배속하고 각각 五行의 배속에 맞게 상응시키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그러면 干合의 原理에서 일반적으로 陽干이 陰干을 相克하게 되므로 陽腑는 陰臟을 相克하여 陽腑의 조건에 따라 陰臟이 조절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sup>12)</sup>. 다음은 裏部의 주요 괄약근이 위치하는 각각의 부위를 중심으로 이와 상관되는 臟腑와 經脈을 찾고 이에 대한 생리적 특징을 검토하여 상호 연관성을 고찰한 내용이다.

#### 1. 喉頭

喉頭에서 頰頰은 호흡할 때는 會厭을 열게 하고 음식을 먹게 되면 會厭을 막게 하여 식도로 음식이 내려가게 해준다. 즉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天氣와 地味가 여기에서 구분되어 天氣만이 喉頭를 통과하도록 조절된다. 인간은 끊임없이 호흡하여 天氣를 출입시키고 있는데 頰頰은 天氣의 출입을 조절하는 문이 된다. 이렇게 天氣는 鼻腔과 頰頰, 會厭 등을 거치면서 肺로 직접 출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肺는 喉頭に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臟器에 해당한다. 喉頭의 會厭은 특히 聲音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靈樞-憂志無言』<sup>13)</sup>에서 口脣, 舌, 懸雍垂, 橫骨, 會厭은 모두 聲音과 관련된 기관에 해당한다고 했다. 『靈樞-憂志無言』에서는 특히 足少陰腎經의 역할을 강조<sup>14)</sup>하고 있는데 腎經은 膀胱經과 함께 經別의 습을

이루어 頭面의 連繫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腎의 기능은 마치 나무에서 잎의 역할을 하는 肺를 喉頭에서 간접적으로 보완해주는 뿌리로서의 역할에 한정된다.

陽腑와 喉頭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傳達路로서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소화기 track과 喉頭가 만나고 있으므로 經脈의 流注와 그 기능상의 역할 등을 보고 類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六腑 중에서 특히 小腸은, 手太陽小腸經別이 手少陰心經과 四合<sup>15)</sup>을 이루며 ‘上走喉嚨<sup>16)</sup> 出於面’하고 있고, 小腸經이 이곳에서 却入耳中하는데 頰頰에서 耳管이 開口하고 있으므로 小腸이 喉頭와 관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小腸의 泌別清濁하는 작용과 喉頭의 위쪽에 위치한 頰頰이 分氣所泄하는 역할이 상호 유사하다. 小腸은 地味를 통해 대소변을 구성하도록 清濁을 泌別하는 곳<sup>17)</sup>인데 喉頭는 天氣와 地味를 나누어 天氣가 通行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喉頭는 鼻에서부터 肺로 들어오는 天氣를 淸淨하게 걸러주

12) 干合은 甲巳合化土, 乙庚合金, 丙辛合化水, 丁壬合化木, 戊癸合化火의 공식을 가지는데 甲膽은 己脾를 相克하고 庚大腸은 乙肝을, 丙小腸은 辛肺를, 壬膀胱三焦는 丁心을, 戊胃는 癸腎脬를 각각 相克하고 있어 陰臟이 陽腑의 制御를 받고 있다. 六腑는 외부의 事物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五臟은 이를 자기화하여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곳이므로 六腑로 받아들여진 外部事物의 상태에 따라 五臟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甲膽은 人事와 같은 시정각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인데 이들 정보에 따라 己脾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

1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95 : 『靈樞-憂志無言』“咽喉者, 水穀之道也. 喉嚨者, 氣之所以上下者也. 會厭者, 音聲之戶也. 口脣者, 音聲之扇也. 舌者, 音聲之機也. 懸雍垂者, 音聲之關也. 頰頰者, 分氣之所泄也. 橫骨者, 神氣所使主發舌者也”

14) 『靈樞-憂志無言』(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95)에서 “足之少陰, 上繫於舌, 絡於橫骨, 終於會厭”라고 하여 舌과 연계되어 있지만 終局에는 會厭과 같이 喉頭와 만나는 점에서 끝나므로 肺-小腸의 丙辛合化水가 주관하고 있는 喉門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1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97 : 『靈樞經別』“手太陽之正, 指地別於肩解, 入腋走心, 繫小腸也. 手少陰之正, 別入於淵腋兩筋之間, 屬於心, 上走喉嚨, 出於面, 合目內眥, 此爲四合也”

1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97 : 『靈樞經別』에서 心小腸의 四合만이 走喉嚨하고 心包, 三焦의 五合과 肺, 大腸의 六合은 循喉嚨하여 직접적으로 喉嚨으로 流注하지 않고 둘러 흐르게 된다. 그러므로 四合만이 직접적으로 喉嚨에 관여하게 된다.

17) 『素問靈蘭秘典論』(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4.)에서 “小腸者受盛之官 化物出焉”이라 했고 『醫學入門臟腑條分』(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84.)에서 “小腸…泌別其清濁宣通”이라 했으니 脾가 음식을 소화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것과는 달리 小腸은 음식에서 水液과 糟粕을 구분해서 대소변을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小腸에 관한 韓醫學的 生理觀은 현대의학의 小腸生理와는 다르다. 실제 小腸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능을 韓醫學에서는 脾의 역할로 포괄시켜 관념화했고, 수분흡수에 의한 小便 형성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糟粕으로 大便이 갖추어지게 淸濁 조절하는 역할에 국한하여 小腸의 기능으로 삼았다.

고 습도와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肺에서 喉頭를 통해 가래 등을 배출하는 역할도 한다.

소화기를 통하거나 몸의 순환을 통해 모든 脈은 肺로 모여들게 된다<sup>18)</sup>. 그러므로 음식 역시 小腸에서 대소변으로 변화되는 잔여물을 제거하게 되면 음식에서 발생하는 모든 水穀之精은 결국 저절로 肺로 모이게 되어 天氣와 會하게 된다. 이때 小腸은 소화기로부터 肺로 모여들게 되는 水穀之精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小腸과 喉頭는 天氣와 地味が 淸淨한 상태로 肺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天地의 氣味가 交會하게 되는데 天地氣味の 會을 이루도록 조절하는 과정이 丙辛合化水<sup>19)</sup>에 해당한다. 天氣는 地味와 會음을 하기 때문에 天氣는 地味에 맞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만약 小腸에서 泌別淸濁하는 기능이 저하된다면 肺로 들어가는 汚濁한 기운이 과다해지고 이로 인해 肺는 天氣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喉頭로 그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喉頭에서 질병발생이 용이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喉頭는 肺로 天氣가 들어오는 시작인 동시에 小腸의 泌別淸濁의 결과가 발현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丙辛合化水の 干合作用은 肺와 小腸과의 化會를 통해 조절되고 이 변화가 반영되기 쉬운 곳은 喉頭가 된다.

## 2. 咽頭

다음으로 咽頭가 있는데 여기는 地味를 받아들이는 첫 관문이 된다. 喉頭는 天氣의 통로에 해당하지만 咽頭는 地味の 통로에 해당한다<sup>20)</sup>. 咽頭에는, 天氣의 통로에 해당하는 喉頭に 肺가 직접 연계되어 지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식도를 거쳐 胃·小腸·大腸

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 직접적으로 咽頭를 지배하는 주된 臟腑를 찾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咽頭를 구성하는 臟器들이나 咽頭를 중심으로 流注하는 經脈, 위치 등을 고려하여 臟腑와의 상관관계를 찾아야 할 것이다.

地味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작용과 관련된 陰藏을 중심으로 찾아본다면, 肺와 腎의 경우는 天氣의 호흡과 水氣의 生成에 관련되므로 우선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肝과 脾와 心이 주된 陰藏이 될 수 있다. 우선 經脈의 流注分布를 고려해 본다면, 肝經의 경우는 頰頰을 지나 눈을 경유한 뒤 입안으로 분포<sup>21)</sup>하고, 脾經은 咽을 끼고 舌本과 舌下로 流注<sup>22)</sup>하며, 心經 역시 咽을 끼고 目系와 連繫되는데 手少陰之別이 舌本으로 連繫되며 目系에 屬<sup>23)</sup>하고 있다. 이때 음식을 받아들이는 행위와 관련하여 經脈의 分布 경향을 통해 각 經脈의 작용방식을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肝經은 筋肉을 주관<sup>24)</sup>하면서 下肢에서 상승하여 目系에 連하고 督脈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에 따른 두뇌의 작용과 이에 상응하는 下肢의 운동 상태와 관련된 經脈임을 알 수 있다. 만약 捕食者와 被食者의 관계를 설정해본다면 이 經脈의 역할을

2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83 : 『靈樞經脈』에서 “肝足厥陰之脈, 起於大指叢毛之際, 上循足跗上廉, 去內踝一寸, 上踝八寸, 交出太陰之後, 上膈入廉, 循股陰, 入毛中, 過陰器, 抵小腹, 挾胃屬肝, 絡膽, 上貫膈, 布脇肋, 循喉嚨之後, 上入頰頰, 連目系, 上出額, 與督脈會於顛. 其支者, 從目系下頰裏, 環唇內. 其支者, 復從肝, 別貫膈, 上注肺.”라고 했는데 頰頰을 지나 目系로 이어지고 다시 구강내측과 입술 안쪽으로 분枝하고 있다.

2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80 : 『靈樞經脈』에서 “脾足太陰之脈, 起於大指之端, 循指內側白肉際, 過核骨後, 上內踝前廉, 上端內, 循脛骨後, 交出厥陰之前, 上膝股內前廉, 入腹, 屬脾, 絡胃, 上膈, 挾咽, 連舌本, 散舌下. 其支者, 復從胃, 別上膈, 注心中.”라고 했으니 下肢에서 起始하여 咽을 끼고 舌本에 連繫된다.

2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p.80-84 : 『靈樞經脈』“心手少陰之脈…其支者 從心系上挾咽 繫目系…手少陰之別…繫舌本屬目系”

2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83 : 『靈樞經脈』“厥陰者 肝脈也 肝者筋之合也”

1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86 : 『素門經脈別論』“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毛脈合精, 行氣於腑, 腑精神明, 留於四藏, 氣歸於權衡, 權衡以平, 氣口成寸, 以決死生.”

19) 小腸은 丙에 해당하고 肺는 辛에 해당한다.

2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12 : 『素問太陰陽明論』“喉主天氣 咽主地氣”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捕食者의 입장에서 被食者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구강 내에서 침이 고이게 될 것이고 被食者는 아마도 입이 바짝 마르게 될 것이므로, 肝經은 입안의 점막 역시 流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肝經은 飲食을 두고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준비단계에서 주로 작용하는 經脈이다. 실제 肝은 소화·흡수를 마친 뒤 水穀之精을 저장하거나 해독·배설하는 등의 작용을 하므로, 삼켜서 먹는 행위나 소화·흡수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脾는 음식을 소화해서 흡수하고 이를 運輸散布하는 역할을 하지만 음식을 삼키는 행위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는 않는다. 經脈學으로 볼 때 脾經은 經脈의 분포상 下肢, 소화기, 咽과 舌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소화에 의해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변화되는 口味의 상태와 혀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肝經과 脾經이 주로 下肢와 관계하고 있는 것에 반해 心經이 流注하는 경로는 上肢와 관계하고 있고 咽과 舌 그리고 눈이 연계되어 있다. 上肢가 주로 먹이를 잡거나 먹는 행위와 관련된다면 下肢는 먹이를 잡기 위해 뛰거나 먹은 음식의 영양을 소비하기 위해 움직이는 등의 행위와 더 관련될 것이다<sup>25)</sup>. 결국 心經은 곧 음식을 보고 먹기 위해서 손을 사용해서 삼키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더욱이 心은 君主으로서 理性的인 판단을 관장<sup>26)</sup>하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여 삼키게 되는 과정까지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음식을 발견하면 먹을 수 있을 지 먼저 눈으로 판단하면서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혀로 가볍게 맛을 보기도 하면서 음식을 살펴보다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손으로 잡고 먹

게 되는 과정까지를 心經이 주관하게 된다. 이러한 經脈의 屬性을 추론해서 살펴볼 때, 咽頭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嚥下作用에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經脈은 아마도 心經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현대의학에서, 君火로서의 心은 갑상선 호르몬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갑상선은 homeostatic control system의 역할을 하므로 주로 六氣와 같은 외계의 환경이나 체내의 환경 변화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할은 君火의 작용과 유사하다. 君火는 생리적으로 長하는 역할<sup>27)</sup>과 熱의 속성, 모든 기관을 주관하는 君主의 지위 등을 나타내므로 상당히 많은 면<sup>28)</sup>에서 갑상선과 상호 관련성이 높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 이상은 정신적인 영향에도 중대한 작용을 하는 것<sup>29)</sup>으로 알려져 있어 君神의 작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갑상선 호르몬과 같은 펩티드호르몬은 주로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

27) 여기서는 자라게 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생리학』(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15)25)에서 “갑상선 호르몬은 정상적인 성장과 골격근의 성숙에 필수적인데 자라는 어린이에 있어서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골격 및 기타 조직의 성장이 억제되어 왜소증이 생긴다. 또한 중추 신경계의 발달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28) 『내분비학』(최영길, 내분비학, 서울, 의학출판사, 1994. p.239)에서 “호르몬은 필요 상황에 따라 분비되고 표적 조직의 활성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 생식 및 영양 등의 응급적 상황에 대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갑상선 호르몬은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일정한 수준이 유리되도록 진화되었다. ...미토콘드리아는 갑상선 호르몬 농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세포기관이다.”라고 했고, 『생리학』(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15)24)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의 일반적인 특징은 특정한 target organ이 없고 대부분의 조직들이 이것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며 그 작용이 성장, 성숙, 적응 등과 같은 긴 시간을 요하는 과정에 관계하기 때문에 반응이 늦게 나타나고 또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이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이 되는 예는 별로 없다.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 중 대표적인 것이 산소 소모율 및 열 생산을 증가시키는 calorogenic action이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은 소화관으로부터 glucose 흡수율을 증가시키며 또한 세포에서의 glucose 이용도를 증가시킨다.”고 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갑상선 호르몬은 대부분의 조직을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지배를 하며 성장 등과 관련된 것이 마치 君火의 작용과 흡사하다.

29) 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15)25 : “특히 갑상선 기능 부진증 환자는 중추신경계의 발달이 늦고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신상태가 완전하지 못하여 기억력이 감퇴된다.”

25) 上肢는 어깨에서 외향으로 벌어져 있으므로 모으는 자세를 취하려고 할 때 사용되고, 下肢는 골반에서 모아져 있으므로 벌리는 행동을 할 때 사용된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上肢는 收集의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므로 포획이나 섭취 등과 같은 행위와 관련되고, 下肢는 擴散의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므로 달리거나 소비하는 행위 등과 관련된다.

2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4 : 『素問靈樞秘典論』“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

할을 하며 소화관으로부터 glucose 흡수율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정황을 두고 볼 때 心火는 안정된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섭취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理性的으로 판단해서 먹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러한 理性的인 섭취행위는 咽喉과 더욱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이다<sup>30)</sup>.

經脈의 분포를 중심으로 볼 때, 咽喉에서 舌을 중심으로 본다면 膀胱經筋이 舌本에 맺혀있어 주된 역할을 한다<sup>31)</sup>. 또한 三焦經은 足三焦가 委陽에서 膀胱經과 並行해서 舌本으로 이어지고 있다<sup>32)</sup>. 이러한 의미에서 膀胱經과 三焦經은 咽喉의 舌을 주관하는 陽腑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舌에는 다양한 陰藏의 經脈들이 流注하지만 주로 心經이 주된 經脈으로 連繫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33)</sup>.

한편 腎의 경우는 인체의 水氣를 주관<sup>34)</sup>하고 있는

데, 腎과 짝이 되는 膀胱, 三焦經은 모두 腎에서 생성된 水를 조절하거나 저장하는 水路나 湖水 같은 역할<sup>35)</sup>을 한다. 그래서 腎은 生水를 하는 것이 주작용이라면 三焦, 膀胱은 水를 조절하고 운용하는 妙가 있다. 이러한 작용은 결국 咽喉의 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心火의 火熱과 이에 대한 三焦, 膀胱의 寒水의 상호작용이 對待의인 陰陽으로 구성되어 相克작용을 하면서 調和를 이루어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사에서 발생한 열<sup>36)</sup>을 식혀주고 조절하는 역할은 바로 三焦, 膀胱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그

生水液也.”

- 35) 『素問靈蘭秘典論』(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4)에서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이라고 한데서 水液조절의 역할을 알 수 있다. 또한 『醫學入門臟腑條分』(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92.)에서는 “水穀之道路”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음식물의 소화흡수과정에서 흡수통로로서의 역할을 보이고 있다. 三焦는 歷代로 논란이 많은 臟器인데 張介賓은 『類經圖翼三焦包絡命門辨』(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대성문화사. 1988. pp.267-272.)에서 “三焦其體有脂膜 在腔子之內 包羅乎五臟六腑之外也 此說近之”라 하여 三焦는 해부학적으로 腹膜(omentum)으로 보았고 『難經』의 三焦無形機能論에 대해 『內經』의 내용을 들어 일일이 반박하며 그 有形機能論을 지적하였다. 결국 三焦를 기능적으로 본다면 腹膜에 흡여져 있는 脈管系(특히 정맥과 림프관)의 역할을 의미하고 구조적으로 본다면 소화기에 얽혀있는 脈管系를 감싸고 있는 腹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三焦는 上中下焦의 각 부위에서 흡수한 소화물질을 脈管系를 통해 清濁의 氣를 나누어 수송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靈樞營衛生會』, 『靈樞五癰津液別』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三焦와 膀胱의 관계는 『靈樞營衛生會』(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20)에서 “下焦者, 別迴腸, 注於膀胱, 而滲入焉. 故水穀者, 常并居於胃中, 成糟粕而俱下於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소변의 형성과정에서 일련의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三焦, 膀胱을 포괄적으로 배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類經臟象類』(張介賓. 類經上下. 서울. 대성문화사. 1988. p.47)에서 “水穀入於口, 出於便, 自上而下, 必歷三焦. 故曰中瀆之府, 水道出焉. 膀胱受三焦之水, 而當其疏泄之道, 其本相依, 體同一類, 故三焦下瀆出於委陽, 并太陽之正, 入絡膀胱, 約下焦也”라고 했다. 고대 한의학에서는 腎臟은 소변생성의 기관으로 보지 않았지만 요즘의 호르몬 조절에 의한 수액대사에는 관여한 것으로 인지하였다. 이러한 소변생성은 小腸-下焦-膀胱의 과정에서 또는 脾-肺-膀胱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 등으로 보았다.
- 36) 최영길, 내분비학. 서울. 의학출판사. 1994. p.275 : “만약 갑상선이 항진되면 당대사의 이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 30) 만약 쓴 약을 먹을 때 이성적 판단에 의해 삼키게 되므로 咽喉를 통과하게 되지만 도저히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느껴지면 賁門에서 거부해서 토하게 된다. 그러므로 賁門은 咽喉에 비해서 본능적인 반응이 강하다.
- 3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02 : 『靈樞經筋』“足太陽膀胱之經…其支者 別入結於舌本”
- 3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1 : 『靈樞本輸』에서 “三焦者, 足少陰太陽之所將, 太陽之別也, 上踝五寸, 別入貫膈腸, 出於委陽, 並太陽之正, 入絡膀胱, 約下焦”라고 했다. 『靈樞本輸』에서 三焦와 膀胱을 뭉뚱그려 함께 표현한 것은 經絡學的으로 「本輸」에서 설명되어지는 足三焦의 流注經路가 膀胱經과 並行하기 때문에 한가지로 나타낸 것 같다.
- 33) 『靈樞經脈』(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p.80-81)에서 살펴보면 腎經은 ‘挾舌本’하고 脾經은 ‘連舌本 散舌下’하며 心經은 手少陰之別이 ‘繫舌本屬目系’한다고 하였다. 咽喉의 중심이 되는 舌에는 心經이 가장 主가 되어 매어져 있고 나머지 脾經은 連하고 腎經은 挾하고 있다. 생리적인 기능을 두고 볼 때 脾經은 주로 五味의 소화와 관련하여 타액을 분비하는 등의 작용을 주관하고, 心經은 언어의 理智의인 면과 理智의인 판단에 의해 삼키는 행위 등을 주관하고, 腎經은 聲音의 氣質의인 면을 주관한다고 각각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舌本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된 經脈은 心經과 膀胱經, 三焦經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丁壬合化木의 干습을 이룬다.
- 3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13 : 『素問水熱穴』“少陰何以主腎, 腎何以主水. 岐伯對曰, 腎者至陰也. 至陰者, 盛水也. 肺者, 太陰也. 少陰者, 冬脈也. 故其本在腎, 其末在肺, 皆積水也…諸水皆生於腎乎. 岐伯曰, 腎者牝藏也, 地氣上者, 屬於腎而

래서 咽喉의 주된 臟器는 心火와 三焦·膀胱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의 干습을 통해 咽喉을 조절하게 된다. 그러므로 舌乾, 口燥, 咽乾 등의 증상은 心과 三焦·膀胱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곳은 주로 心火에 의해 소비되고 조절되는 水氣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三焦, 膀胱이 직접 관여하게 되고 腎의 水氣生成의 문제는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내게 된다.

心火는 君主로서 神의 작용이 주로 발현되어 理性과 정신적인 면이 두드러지는데 이 心火의 主宰 下에 있는 人身의 生氣와 관련된 모든 영역이 心火에 의해 다스려지게 된다. 특히 生氣를 생산하기 위해서 음식물의 소화와 그 소화 물질의 상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三焦와 三焦經, 그리고 소화 흡수된 精氣를 流行하여 소비하게 하고 남은 잔여물을 버릴 수 있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膀胱과 膀胱經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전역에 걸쳐 넓고 다양하다<sup>37)</sup>. 이러한 心과 三焦·膀胱의 기능적인 연계는 經脈에서 두드러지는데 三焦經과 膀胱經은 모두 心胸으로 모여 흠어지고 있는 것<sup>38)</sup>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연계성은 결국 丁壬合化木을 발생하여 咽喉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臟腑의 기능과 經脈의 성질이나 작용 등을 고려할 때, 咽喉에서는 丁心과 壬三焦·膀胱이 중심이 되어 연계되고 있으며 이들의 干合作用을 통해 咽喉의 변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丁心과 壬三焦·膀胱은 干습을 통해 五行의 木을 化氣하게 된다.

丁壬合化木의 기전에는 2가지의 경로를 통해 化합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心-三焦 間의 合과, 또 다른 하나는 心-膀胱 間의 合이다. 인체는 경우에 따라서 膀胱經을 통해 외부의 六氣가 작용하기도 하고, 三焦經을 통해 人六氣<sup>39)</sup>가 유입되어 변화<sup>40)</sup>가 발생하기

도 한다. 특히 三焦에서 형성되는 氣는 주로 水穀에서 얻어지므로 상당히 濁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2가지의 다른 化합에 의해 營氣와 衛氣<sup>41)</sup>는 각기 다른 분포를 구성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心-膀胱 間에서 合化하여 발생하는 木氣에는 水穀에 의한 濁氣가 적으므로 衛氣의 量이 적을 것이며, 心-三焦 間에서 合化하여 발생하는 木氣는 三焦에서 유입되는 水穀之精이 많아 營氣의 量보다 衛氣의 量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sup>42)</sup>. 결국 안정 상태에서 땀과 체온의 변화는 心-三焦 間의 合化에 의해서 더 지배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衛氣는 水穀之精 중에서 濁氣를 財源으로 단순한 수분에 가까운 津과 溫暖한 溫熱之氣<sup>43)</sup>로 變化시키기 때문이다.

39) 몸 내부의 精, 氣, 津, 液, 血, 脈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靈樞決氣』(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68)에서 이들을 ‘六氣’라고 했다.

40) 생리적인 변화 외에도 병리적으로 가장 흔한 변화가 감기 증상이다. 주로 咽喉를 위주로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膀胱經(六淫에 의해서)과 三焦經(飲食失節에 의해서)에 의해 발생하는 변화를 心經과 干合作用을 통해 咽喉門을 중심으로 드러나게 된다. 대표적으로 편도선염이나 인후염이 여기에 속한다.

41) 『靈樞營衛生會』(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19)에서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與肺, 五藏六腑, 皆以受氣, 其清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 營周不休, 五十而復大會, 陰陽相貫, 如環無端”이라고 했고, 『素問痹論』에서 “榮者, 水谷之精氣也. 和調於五臟, 灑陳於六腑, 乃能入於脈也, 故循脈上下貫五臟, 絡六腑也. 衛者, 水穀之悍氣也. 其氣慄疾滑利, 不能入於脈也, 故循皮膚之中, 分肉之間, 熏於骨髓, 散於胸腹”이라고 했으니 衛氣는 濁氣이며 脈外로 散行하고, 營氣는 清氣이며 脈內로 流注한다.

42) 『생리학』(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12)6)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원 중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체내에서 완전히 산화되므로 일정량의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한다.” 고 했으며, 『생물학』(로버트 A. 윌리스, 제럴드 P. 샌더스, 로버트 J. 펄, 생물학-생명의 과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2. p.193)에서 “지방은 탄수화물에 비해 1그램당 두 배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탁월한 에너지 공급원이다. 그리고 지방산은 심장근의 주요 화학 연료이며 뇌에서는 지방산이 사용되지 않고 포도당이 주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된다.” 고 했다. 결국 지방과 같은 濁한 精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衛氣가 많이 발생하고, 탄수화물과 같은 清한 精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營氣가 많이 발생한다고 類推할 수 있을 것이다.

4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68, 183, 298, 213 : 『靈樞五癰津液

37) 三焦經은 우리 몸 내부를 감싸고 있는 經脈이고 膀胱經은 몸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經脈으로 三焦經과 膀胱經은 우리 몸 내외를 감싸고 둘러주어 인체 내외의 환경을 조절하는 經脈에 해당한다. 三焦經과 膀胱經은 모두 天干의 壬에 配屬된다.

3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82, 97 : 『靈樞經脈』에서 手少陽三焦經은 ‘散落心包’라 했고, 『靈樞經別』에서 手少陽三焦經은 ‘散於胸中也’라 했고, 足太陽膀胱經은 ‘當心入散’이라 했다.



### 3. 賁門

다음으로 賁門은 胃가 시작하는 부위가 된다. 즉 식도의 下口와 胃의 上口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賁門이므로 衝門의 하나인 賁門에서는 胃가 陽腑로 작용할 것이다. 賁門을 통해서 유입되는 물질은 飲水와 食物의 차이가 있으며 賁門을 통과하는 것과 동시에 飲食의 일부가 체내로 흡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賁門은 飲食의 流入이나 逆流에 대한 조절이 일어나는 곳이 된다. 그래서 賁門에는 飲食이 胃의 내부로 들어오거나 다시 역류하는 것을 조절하는 괄약근이 존재한다. 이 때 賁門에서는 飲食의 流入에 따른 조절이 飲水와 食物에 따라 구분되어져서 일어날 것이므로 賁門을 조절하는 主된 陰藏이 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飲水와 관련하여서는 아마도 腎이 가장 賁門의 주요 陰藏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素問水熱穴』<sup>44)</sup>에서 보이고 있는데 ‘腎은 胃之關’이라고 하여 水液代謝에서 腎은 胃의 關門으로서 啓閉出入을 조절하는 역할<sup>45)</sup>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腎者 胃之關’의 의미는 胃에서 흡수한 水分의 量을 腎을 통해 몸에 지닐 수 있는 만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sup>46)</sup>. 즉 전해질 평형

을 유지하기 위해 소화관을 통한 흡수 속도와 신장에서의 손실 속도가 평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물론 腎은 胃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水液 대사 작용 외에도 우리 몸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sup>47)</sup>.

食物과 관련하여 賁門에서 主된 陰藏을 살펴본다면, 水穀의 道路가 되는 三焦와 表裏臟腑가 되는, 心包가 가장 유력하다. 賁門은 食物을 소화하기 위해 몸의 裏에 속하는 胃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고 제어하는 곳으로 食慾과 관계가 있다. 心包는 기쁘고 안락한 느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sup>48)</sup>이 있고, 表裏가 되는 三焦의 기능을 두고 볼 때 아마도 食慾에 가장 영향을 주리라 예상할 수 있다<sup>49)</sup>. 그러므로

47) 腎을 의미하는 癸水是 스테로이드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갑상선호르몬(췌티드 호르몬에 속함)과 같이 긴 시간을 요하는 적응에 작용하는 것(君火)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데 작용하는 것(相火)으로 보인다. 腎은 aldosterone 등과 같은 mineralocorticoids에 의한 신장, 타액선, 한선 및 위액분비선으로부터 Na<sup>+</sup>의 재흡수를 촉진하여 水液代謝에 작용하고, glucocorticoids 등에 의한 단백질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mineralocorticoids는 실제 물질적인 水氣를 늘이는 효과가 있지만, glucocorticoids는 스트레스와 자극 같은 火氣에 대항하는 기능적인 水氣의 力量을 향상시킨다. 胞는 androgen, estrogen, progesterone 등과 같은 sex hormone에 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任督脈의 분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androgen과 같은 남성 호르몬은 督脈의 역할과 거의 흡사하여 고환 및 음경발육을 촉진하고, 체모를 증가시키나 머리털을 감소시켜 대머리가 되게 하고 근육발달을 촉진하며 남성의 공격성, 정복욕 등을 좌우하게 한다. estrogen과 같은 여성 호르몬은 任脈의 역할과 거의 흡사하여 여성 생식기관 및 유방 성장 발육에 영향을 주고 둔부에 지방질을 침착시켜 커지게 하며 체모는 적어지나 머리털을 많아지게 하며 피지선 분비액을 물과 같이 하여 면포의 형성을 방해하고 콜레스테롤의 혈장 내 농도를 낮춘다 (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p.(15)47-74).

48) 『素問靈蘭秘典論』(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4)에서 “膻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라고 했고 『靈樞經脈』(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82)에서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是動則病手心熱, 臂肘攣急, 腋腫甚則 脇支滿, 心中憺憺大動, 面赤, 目黃, 喜笑不休.”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心包는 喜樂과 같은 감정의 상태를 주관하고 있어서 心包經이 병들면 감정변화가 발생한다. 그런데 『靈樞經脈』에서 心經의 경우를 살펴보면 감정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 이러한 정황을 두고 볼 때 心은 君主로서 理性的인 면을 주관한다고 보았고, 心包는 臣使之 官으로서 본능적인 감정을 주관한다고 본 것 같다.

49) 心包에서 喜樂의 감정이 주로 발생하게 되므로 心包는 喜

別論》에서 “穀者入於口, 其味有五, 各注其海. 津液各走其道, 故三焦出氣, 以溫肌肉, 充皮膚, 爲其津, 其流而不行者爲液”라고 했고, 『靈樞決氣』에서 “腠理發泄, 汗出溱溱, 是謂津 穀入氣滿, 渾澤注於骨, 骨屬屈伸, 洩澤補益髓髓, 皮膚潤澤, 是謂液”이라고 했는데 『靈樞邪客』에서 “營氣者, 泌其津液, 注之於脈, 化以爲血, 以榮四末, 內注五藏六腑, 以應刻數焉. 衛氣者, 出其悍氣之慄疾, 而先行於四末分肉皮膚之間, 而不休者也”라고 한 것과 『靈樞本藏』에서 “經脈者, 所以行血氣而營陰陽, 濡筋骨, 利關節者也.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關闔者也”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津의 개념은 衛氣와 相關하고 液의 개념은 營氣(經脈之氣)와 相關하고 있다. 그러므로 衛氣는 津의 생리변화인 水液代謝와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營氣는 일반적으로 經脈之氣와 血의 생리작용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4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13 : 『素問水熱穴』“腎者胃之關也, 關門不利, 故聚水而從其類也, 上下溢於皮膚, 故爲跗腫, 跗腫者, 聚水而生病也.”

45) 張介賓, 類經上下, 서울, 대성문화사, 1988, p486 : 『類經針刺類』“關者 門戶要會之處 所以司啓閉出入也.”

46) 이러한 생리작용을 이용해 응용된 처방이 五苓散이다. 五苓散은 물만 먹어도 따하는 水逆에 처방된다.

賁門에 작용하는 主된 陰藏은 心包가 가장 유력하다<sup>50)</sup>.

또한 心包가 膻中에 위치하여 賁門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心包가 主된 陰藏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앞서 설명한 것을 보면, 주요 괄약근의 위치와 主가 되는 陰藏의 위치 역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喉頭와 咽頭는 모두 胸 上部에 위치하여 心胸部에 위치하는 肺와 心이 조절하는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賁門에서부터 아래에 위치하는 幽門, 關門의 중심이 되는 陰藏은 胸部의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성을 두고 본다면, 賁門이 胸部와 腹部가 나누는 중간에 위치하는 것과 같이 心包는 膻中에 위치하여 賁門에서 가장 유력한 중심 臟器가 된다. 心包를 제외한 脾의 경우는 이미 胃內로 흡입된 水穀을 소화·흡수하는 과정과 관련되므로 賁門의 변화과정을 이미 경과한 생리작용에서 主가 된다. 또한 肝의

樂을 채워줄 慾求를 일으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心包와 表裏關係에 있는 三焦는 주로 음식과 관계하므로 心包에서 유발되는 慾求是 食慾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하지만 命門에 의해 상하로 연결된 心包와 胞와의 상관성을 두고 본다면 性慾 역시 心包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50) 조용주, 김진주. 開關樞 기능에 관한 研究.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8. 25(1). pp.19-37 : 이 논문의 관점에서 開關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우리의 몸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상태일 때 괄약근을 비롯한 근육군들이 剛直해지면서 긴장하게 된다. 이러한 작용의 일환으로 賁門도 작용하게 된다. 이때 심한 스트레스는 厥陰經과 陽明經에 대한 關作用을 亢進시키며 閉鎖의인 기능계를 형성하여 싸우거나 도망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심각한 위협에 노출된다면 厥陰經 중에서도 肝經이 주로 작용하게 되어 肝經이 지배하는 근육과 대뇌의 작용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心包經은 허탈해져 不安과 怔忡 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차츰 위협이 사라지면서 극심한 긴장은 완화되지만 아직 警戒을 하는 상태에서 소비된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음식을 먹으려고 할 것이다. 心包는 '喜樂'을 주관하므로 아마도 이때가 되면 肝經에 집중된 精氣가 같은 厥陰經의 心包經으로 분산되면서 賁門의 開合을 조절해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볼 때 스트레스가 심하면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리라고 보인다. 心包經은 아래로 命門에 이어져 있어서 부신의 기능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心包經의 기능에 의해 賁門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心包經으로 精氣가 많이 흘러들면 다시 心包와 연계되어 아래에 연결된 命門과 胞로도 精氣가 흘러들어 氣의 중심이 아래로 하향하므로 남아있던 不安은 사라지고 警戒을 풀게 되면서 開經이 작용하게 된다.

경우는 脾의 생리작용에 의해 소화와 흡수를 마친 다음 과정에서 일어나는 배설과 해독 저장 등의 생리작용을 하므로 더욱 賁門 자체의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이러한 각 陰藏의 생리작용과 위치와의 관계성을 볼 때 賁門에서는 腎과 心包에 해당하는 癸水와 胃에 해당하는 戊土가 중심이 되어 干습을 하고 化火<sup>51)</sup>를 하게 되는 것 같다.

賁門에서 중심이 되는 腎經과 胃經은 咽喉에 까지 영향<sup>52)</sup>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음식 섭취를 할 때 賁門은 上位의 咽喉에 續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상부에서 연속적으로 전해져 賁門으로 地味가 유입되지만 이를 받아들일 때 飲水와 食物을 구분해서 조절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갈증과 배고픔을 조절하는 것은 시상하부<sup>53)</sup>에서 하게

51) 化火는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調神의 역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調神은 神機의 작용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자율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조절되는 생명체의 생리현상으로 볼 수 있다. 『素問五常政大論』(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57)에서 “根於中者 命曰神機 神去則機息 根於外者 命曰氣立 氣止則化絕”라고 한데서 神機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는데 張介賓은 특히 동물과 같은 생물체에게서 나타나는 적응과 반응의 현상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동물은 내외의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기와 비자기적 요소를 구분해서 작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능동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고 일단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를 받아들여 나의 몸에 적합한 물질로 변환하는 소화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능동적인 생리작용의 발단은 바로 이러한 化火에 의한 神機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면역작용을 하는 일련의 작용도 化火에 의한 神機의 작용에 의해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5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81, 97 : 『靈樞經脈』에서 足少陰腎經은 “循喉嚨, 挾舌本”이라 했고, 『靈樞經別』에서 足陽明胃經은 足太陰脾經과 함께 三合을 이루어 “上結於咽 貫膈中”이라 했다. 『靈樞經別』에서 脾胃의 三合만이 結於咽하고 肝膽의 二合의 경우는 貫心以上挾咽하여 咽을 끼고 上行하고 있어 肝膽經은 간접적으로 咽에 영향을 주고 있다.

53) 로버트 A. 윌리스, 제럴드 P. 샌더스, 로버트 J. 펠. 생물학-생명의 과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2. p.713 : “물론 시상하부에서 감각정보를 받아서 식욕, 물의 체내농도, 혈압, 체온 등과 같은 체내 상황을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그것은 또한 배고픔, 목마름, 성욕, 분노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도 영향을 준다.” 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18)11 : “시상하부는 갈증을 일으켜 물을 마시게 유도하던가 혹은 요로 물의 배설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수분대사를 조절한다.”

되지만 이러한 욱구는 약간의 차이를 가진다. 음식의 섭취에는 심리적인 복잡한 기전과 신체적으로 虛飢라고 하는 느낌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갈증의 경우는 虛飢 보다는 덜 정서적이다. 그러므로 갈증과 같은 욱구는 水氣를 관장하는 腎과 관련되지만 虛飢와 같은 食慾은 다분히 相火와 관련된 心包가 주로 작용하게 되는 것 같다<sup>54)</sup>. 心包와 三焦에서 작용하는 相火의 역할은<sup>55)</sup> 시상하부의 위산 분비 조절 기능에서도 관련성<sup>56)</sup>을 찾아 볼 수도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생길 때 相火가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부신의 기능과 食慾과의 상관성에서도 상호 관련성<sup>57)</sup>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몸이 스트레스 등에 의해 暢達하지 못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상하부를 자극하고 부신의 코티졸 분비를 늘리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하여튼 賁門의 부위는 먹는 행위와 관련되어서 구토, 섭취 등과 같이 음식물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체와 관련지어 물의 가장 중요한 성질을 든다면 아마 물의 온도에 대한 안정성일 것이다<sup>58)</sup>.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의 火작용은 반드시 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를 水火相交라고 한다. 戊胃를 중심으로 한 陽土의 소화작용은 水火作用에 상당한 변화를 수반하게 되므로 腎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소화기를 중심으로 많은 量의 體液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59)</sup>. 우리 몸의 體液은 결국 五主(五體)와 六腑 사이를 순환하는 것이 되는데 마치 天地를 雲雨가 昇降하는 것과 같다<sup>60)</sup>. 하늘이 熱하면 地水는 상승하는 것과 같이 운동을 해서 五主가 熱하면 많은 수분이 모두 五主로 모여들게 되고,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에서 발생한 화학에너지를 통해 熱을 일으키므로<sup>61)</sup> 五主의 體液이 六腑로 집중되기 쉽다. 三焦

54) 心包가 食慾에 관여할 것이라는 것은 相火의 작용과 관계가 있다. 相火는 우리 몸에서 느끼는 기본적인 慾求와 관련하기 때문이다. 『醫學入門·臟腑條分』(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91)에서 “命門下寄腎右而絲系曲透膀胱之間, 上爲心包而膈膜橫連漫之外, 配左腎以臧眞精, 男女陰陽攸分, 相君火以繫元氣, 疾病死生是賴”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命門의 相火는 위로는 心包에까지 미치고 아래로는 생식기와 胞에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血室乃營衛停止之所 經脈流會之處”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營衛가 胞에서 모이고 停止하여 다시 流注하고 散行하게 되므로 이때 營衛의 흐름이 胞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위로 다시 心包에도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心包는 胞와 같이 命門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命門 相火는 生氣를 일으키므로 食慾과 性慾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心包가 食慾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55)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92 :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三焦를 설명하면서 “發無根之相火”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相火의 역할은 특히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56) 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18)12 : "시상하부의 뒷부분을 자극하면 자극 후 3시간에 위산분비가 최고에 달하는데 이 현상은 양쪽 부신을 절단하면 위산분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posterior hypothalamus에서의 위산분비 조절은 ACTH투여시 유사한 반응 보이는데 시상하부의 뒷부분은 뇌하수체전엽에서 ACTH를 유리시켜 이 ACTH가 부신피질을 자극하여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와 위산분비를 조절하므로 posterior hypothalamus는 액성 기전에 의한 위산분비 조절 부위임을 알 수 있다."

57) 권오길, 인체기행, 서울, 지성사, 2001, p.94. : "부신에서 분비되는 cortisol은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화시켜 혈당을 증가시키는 대사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중추신경이나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므로 몸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무기로 스트레스에 대응한다. 그래서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이 먹기도 하는데 그것은 자신을 몸을 방어하기 위한 영양분의 공급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리한 반응이라 볼 수 있다."

58) 로버트 A. 윌리스, 제럴드 P. 샌더스, 로버트 J. 펄, 생물학-생명의 과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2, p.66, 974 :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열이 필요하며 일단 뜨거워진 물은 쉽게 열을 잃지 않는다.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대사과정에서의 대부분이 이러한 물의 특유한 화학적 성질에서 비롯된다."

59) 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3)1, (10)1, (11)44 : "體液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정되고 있으며 크게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으로 나누고 세포외액은 혈장과 간질액(ISF) 및 transcellular fluid)로 나누게 된다. 이때 우리 몸의 體液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세포외액이며 이 중에서도 transcellular fluid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체는 소화를 위해서 8.5-10ℓ 정도의 양의 물이 하루 동안 장관내로 들어오게 되며 이중 대부분을 흡수한다. 그리고 혈액의 25%가량이 신장을 관류하는데 이는 신장이 단순히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관이 아니라 체내의 수분 및 전해질량과 삼투질농도를 조절하며 산-염기 평형에 기여하는 등 생체 내 환경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胃는 음식물이 섭취되어 머무르는 첫 결집장소로 水穀을 消磨하는 작용을 한다. 이 때 우리 몸은 상당히 많은 體液을 소화기로 쏟아 부어 소화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몸 전체의 體液에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60) 조용주, 김진주, 四氣五味論의 구조적 해석, 한국한의학회원 구원논문집, 2005, 11(2), pp.23-33 : 계절에 따른 氣味변화와 水火升降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있다.

는 水穀의 소화 작용에서 출입하는 水液의 역동적인 상태에 있고, 膀胱은 腎臟의 기능을 통해 혈액을 걸러 尿를 저장하게 되므로 반드시 腎臟의 氣化작용을 통하여야만 요로 배출될 수 있다<sup>62)</sup>. 하여튼 戊癸火는 인체의 水液代謝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것의 중심에 癸水에 해당하는 腎臟이 있다. 이와 같이 戊癸合化火는 賁門에서 작용하는 水液代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戊癸合化火는 이 腎-胃의 관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胞-胃<sup>63)</sup>의 관계도 역시 존재하고 있다. 胞는 위로는 心包와 관련되고 그 자체로는 命門의 집이 되는데<sup>64)</sup> 元氣를 내어 人身의 氣를 發源하는 곳이 된다. 이는 腎-胃의 水液代謝 체계와는 달리 胞에서 調節되고 始終하는 血과 생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여성이 임신하였을 때 나타나는 惡阻인데 이는 胞宮에 胎를 가진 뒤에 나타나는 胃기능의 변화이다. 腎과 관련된 기능이 飲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胞와 관련된 기능은 食慾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다. 腎은 온 몸의 水氣를 掌管하지만 胞는 온 몸의 陽氣인 命門의 火를 主管하므로 食物의 출입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다. 이 때 임신부는 賁門을 통해 구역감을 나타내거나 입맛이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이 賁門에는 水氣와 관련되어 제 현상이 발생하는 腎-胃 合의 水液

代謝체계와 또 다른 하나인 胞-胃 合의 혈액 관련 체계가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腎-胃의 合化과정은 주로 飲水의 소화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과 관련되며, 心包(胞)-胃의 合化과정은 주로 食物의 소화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과 관련된다<sup>65)</sup>. 즉 腎은 飲水를 주관하여 胃에 들어온 水氣를 받아들여지게 되고, 心包(胞)는 食物을 주관하여 胃에 들어온 火氣(食物)를 받아들여 소화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 幽門

幽門은 胃와 小腸이 만나는 부위로 賁門과 같이 팔약근이 존재한다. 십이지장이 幽門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靨관, 담관 등이 개구하여 소화액이 다량으로 분비되는 곳이다. 인체에서 실제 소화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이 小腸이다. 소화작용은 賁門의 戊癸合化火 작용에 의해 촉발이 되지만 幽門의 부위를 지나서야 왕성한 소화작용과 흡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幽門의 부위를 조절하는 중심 臟腑는 소화흡수에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화흡수에 관련된 陰藏은 당연히 脾<sup>66)</sup>가 여기에 속한다. 脾의 기능

61) 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p.(12)2-3 : 화학에너지는 생명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이는 체내에 섭취된 탄수화물, 지방 및 단백질 등의 음식물이 일련의 단계적인 반응에 의하여 산화됨으로써 공급된다. 즉 음식물의 산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화학에너지가 방출되며 최종적인 부산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형성된다. 모든 생화학반응은 열역학법칙에 따라 화학에너지 중의 일부를 항상 열로 방출한다.

6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4 : 『素問靈蘭秘典論』“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63)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63 : 『醫學入門運氣總論』에서 “壬屬膀胱腎臟, 三焦亦向壬宮寄, 胞絡同歸入癸方”이라고 하여 癸方에는 腎과 함께 胞도 역시 존재한다.

64)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91 :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命門下寄腎右而絲系曲透膀胱之間, 上爲心包而膈膜連漫之外, 配左腎以藏眞精, 男女陰陽攸分, 相君火以繫元氣 疾病死生是賴”라고 했으므로 여기서는 心包와 胞가 上下로 연결된 한 기관으로 보는 견해를 따랐다.

65) 『素問經脈別論』(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86)에서 보이고 있는 소화생리과정 중 飲은 단순히 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녹아 있는 輕淸하고 精微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portal vein으로 흡수되는 전해질, 미네랄, 아미노산, 포도당, glycerol, 비타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飲의 소화흡수과정에서 portal vein을 거치는 경로가 『經脈別論』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食의 소화흡수과정은 마치 lymphatics를 통해 심장으로 유입되는 지방, 지용성 비타민(비타민 A,D,K), 소량의 아미노산 등의 흡수과정과도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66) 脾는 한의학적으로 다양한 臟器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관념화 것으로 보인다. 우선 『東醫寶鑑內景篇』(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91. p.143)에서 “脾形象馬蹄 內包胃腕象土形也”라고 했는데 이는 해부학적으로 靨장(pancreas)을 의미하고, 『難經·42難』(秦越人.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중화민국74. pp.204)에서 “脾重二斤三兩, 扁廣三寸, 長五寸, 有散膏半斤, 主裹血, 溫五臟, 主藏意”라고 한 것은 靨장 및 장간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素問太陰陽明論』(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12)에서는 “四肢皆稟氣於胃而不得至經, 必因於脾內得稟也... 脾藏者, 常著胃土之精也, 土者, 生萬物而法天地, 故上下至頭足, 不得主時也”라고 했고, 『素問厥論』(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69)에서는

은 飲食의 소화는 물론 흡수하여 온몸으로 運輸散布<sup>67)</sup>하는 기능에 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脾의 運輸散布가 불리하게 된다면 幽門에서 음식물의 이동은 제한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sup>68)</sup>. 幽門을 지나게 되면 몸의 내부로 흡수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한 조절이 필요하다. 만약 상한 음식물이 胃內로 들어왔다면 幽門을 닫고 賁門을 열어 타하게 되지만 幽門을

지나 小腸으로 들어왔다면 小腸은 상한 음식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심한 설사를 일으키고 병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은 발열하면서 극렬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幽門은 우리 몸의 내부로 들어올 水穀의 量과 상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절 기능을 脾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脾를 ‘諫議之官’<sup>69)</sup>또는 ‘諫議大夫’<sup>70)</sup>라고 하는데 원래 脾가 意를 담고 있기 때문에 神志가 결정되지 못하면 意가 이를 通하게 하므로 갖게 된 명칭이다<sup>71)</sup>. 한의학적 해석은 多義的이고 포괄적인 概念象을 나타내므로 脾土에서 갖는 이러한 諫議 기능은 정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면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醫學入門臟腑條分』<sup>72)</sup>에서는 食貪으로 과식을 할 때 脾에 의해 조절되는 양상을 보이므로 諫議大夫라고 부른다고 했다<sup>73)</sup>. 우리가 음식을 보고 먹고 싶어 할 때 우선 삼키게 해주는 것은 咽喉와 賁門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때는 앞서 설명한 心과 心包의 조절이 개입된 것이다. 하지만 먹은 음식에 대한 소화는 脾에서 담당하므로 幽門을 통과 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하는 것은 脾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飲食의 量이 너무 과다하다면 脾에 의해 幽門은 닫히게 되고 賁門이 열리면서 타하게 될 것이다.

幽門은 小腸이 시작하는 부위이므로 당연히 小腸이 幽門의 중심 陽腑일 것으로 보이지만 한의학적으로 小腸은 丙辛合化水에서 언급했듯이 清濁을 泌別

“脾主爲胃行氣津液者也”라고 했으며 『醫學入門臟腑條分』(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86)에서 “脾鎖黃庭磨水穀以養四臟, 職兼諫議, 卻生硬以輔心君, 中理五氣, 運布於體面”이라 했는데 현대의학으로 본다면 小腸에서 음식을 소화시켜 간문맥계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여 간을 통해 運輸散布하는 기능을 脾의 기능으로 설명한 것을 알 수 있다. 『생리학』(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11)54)에서 “肝은 체내에서 가장 대사율이 높은 조직의 하나로서 안정 상태에서 몸 전체 산소 소모율의 20%를 차지하며 간 조직은 세포내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 이들을 다른 기관에 공급한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脾의 運輸機能은 현대생리학적으로 肝의 기능이 일부 포함된다. 이렇게 『內經』, 『難經』, 『醫學入門』, 『東醫寶鑑』등의 내용으로 보아 해부학적으로 췌장(pancreas)과 장간막(mesentery) 및 간문맥계(hepatic portal system)와 肝(liver-영양의 공급) 및 小腸(small intestine-소화 흡수)의 기능 일부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脾는 天干의 己土에 속해 빈 공간을 의미하는데 소화기에서 빈 공간으로서 정신을 향해 運輸散布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소화기에서 간문맥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물과 肝의 일부 역할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脾는 해부학적으로 췌장을 의미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오랫동안 의학이 발전하면서 土의 속성을 가진 다양한 기능을 관념적으로 확장시키면서 포괄적 개념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五臟들도 마찬가지로 해부학적인 일정한 臟器를 정해두고 五行學의 관념되어지는 기능을 포괄적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생리적인 개념을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실제 해부조직학적인 기술의 미비로 관찰 가능한 기능적인 현상을 진단과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당시의 연구 방식에 해당하는 陰陽五行學을 중심으로 하는 관념적 인식방식을 따랐기 때문 일 것이다.

6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112, 169 : 『素問太陰陽明論』에서는 “四肢皆稟氣於胃而不得至經, 必因於脾內得稟也”라고 했고, 『厥論』에서는 “脾主爲胃行氣津液者也”라고 했으니 결국 脾가 水穀之精을 온몸으로 運輸散布하는 역할을 한다.

6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89 : 『素問藏氣法時論』에서 “脾病者...虛則服滿 腸鳴飧泄 食不化.”

6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86 : 『素問刺法論』 “諫議之官 知周出焉.”

70)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86 : 『醫學入門臟腑條分』에서 “諫議大夫”라고 했다.

71) 張介賓, 類經上下, 서울. 대성문화사, 1988, p.671 : 『類經運氣類』 “脾藏意, 神志未定, 意能通之, 故爲諫議之官.”

72)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86 : 『醫學入門臟腑條分』 “脾本倉廩之官, 五味出焉. 飲食人之大欲, 凡生冷堅硬之物, 心所欲食而脾不能化, 則不敢食, 故又名諫議大夫.”

73) 이러한 역할은 흡수량과 공급량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에 해당한다. 脾는 소화된 음식으로부터 水穀之精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運輸散布를 통해 온몸으로 水穀之精을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아울러 飲食의 過不足을 認知하는 諫議之官의 역할을 하므로 결국 섭취한 음식에 대한 흡수량과 소비를 위한 공급량을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기능<sup>74)</sup>을 의미하므로 腐熟된 水穀을 대변과 소변으로 나누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小腸을 거치면서 淸한 精氣는 몸으로 흡수되어 중국에는 小便이 되고, 濁한 滓穢는 대변이 되는 것이다. 幽門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量과 상태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小腸의 단순한 泌別淸濁 기능을 두고 볼 때 小腸이 幽門의 중심 陽腑가 아님을 알 수 있다. 陽腑 중에서 이러한 검역과 조절의 기능을 가진 것은 膽 뿐이다. 膽은 中正之官이라고 하여 決斷하는 기능<sup>75)</sup>을 대표하고 있다. 膽은 經絡學的으로도 이러한 기능을 추측할 수 있는데 膽經은 눈을 중심으로 하여 起始하고 耳中을 流注하므로 聲色으로 표현되는 人事를 耳目을 통해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sup>76)</sup>. 만약 우리의 비위가 상할 정도의 시정각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膽經을 통해 자극이 頭腦로 전달되고 혀구역질을 하게 된다<sup>77)</sup>. 이러한 기전을 두고 볼 때 膽은 幽門의 기능을 조절하고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아마도 脾의 運輸散布 기능은 膽의 검열과 조절에 의해 각각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변화되는 것 같다<sup>78)</sup>. 그러므로 脾는 膽과 干습을 이루고 小腸과는 臟腑相關關係<sup>79)</sup>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甲己인 膽과 脾의 작용에 의해 본격적으로 合化土를 형성함으로써 소화된 津液과 水穀의 精氣를 흡수하게 된다. 흡수되어진 水穀之精은 足太陰脾經을 통해 온몸으로 散布되어진다. 이렇게 溶解 흡수된 水穀之精이 脾에 의해 運輸散布되어지면서 각각의 부위와 상황에 알맞게 淸濁의 정도를 나누고 조절하는 類分의 과정이 甲己合化土에 해당한다.

## 5. 關門

신체에서 사용할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화 흡수와 運輸散布작용을 하면서 반드시 並行하여야 할 작용은 잉여분을 저장하거나 소비하고 난 노폐물이나 잔여물을 버리는 것이다. 이 과정은 運輸散布와 달리 몸에 있던 기존의 잔여물과 노폐물을 버리고 새로운 生氣가 형성될 수 있도록 餘地를 확보하는 新生舊除의 과정으로 脾와 肝의 共助가 필요하다<sup>80)</sup>. 新

74)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84 : 『醫學入門臟腑條分』, “小腸上接胃口, 受盛其精粕, 傳化下達膀胱廣, 泌別其淸濁宣通.”

7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4 : 『素問靈樞秘典論』,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

7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82, 97 : 膽經은 『靈樞經脈』에서 “膽足少陽之脈, 起於目銳眦, 上抵頭角下耳後... 其支者, 從耳後入耳中, 出走耳前, 至目銳眦後...”라 했고 『經別』에서 “足少陽之正... 貫心以上挾咽, 出頤頰中, 散於面, 繫目系, 合少陽於外眥也”라 했다. 膽經은 시정각자극을 받아들이는 耳目에 모두 流注하고 있어서 판단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77) 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11)16 :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혹은 음식을 먹더라도 위내로 들어가지 않게 위식을 시켜도 위액이 다량 분비되는데 이는 조건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뇌상이라고 한다. 뇌상은 비록 위식을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잘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에 먹어보았던 효과가 대뇌고위중추에 기억되어 있어서 이것이 미주신경을 통하여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뇌피질이나 미주신경 중 어느 하나만 제거해도 뇌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소화의 시작을 뇌상을 통해 하게 되며 이러한 작용은 시정각적 자극을 통해 膽經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련적인 작용으로 水穀之精이 흡수되고 온몸으로 散布하게 된다. 膽經은 樞經으로서 조절스위치와 비슷한 역할을 하여 脾經의 運輸機能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경계의 작용과 관련되어 있고 실제 膽經의 작용 양상이 신경계의 작용과 생리적으로 흡사한 면이 있다.

78) 예를 들어 징그러운 음식이나 더러운 음식이 있으면 일단 음식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우선 먹으려고 하지 않으며 설령 먹게 되더라도 소화흡수를 방해하기도 해서 결국 토하거나 심인성 설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또는 위급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의 精氣는 대뇌와 근육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고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이 되면 精氣가 다시 소화기와 피부로 퍼져나간다. 주로 이러한 작용이 좀 더 섬세하게 우리의 소화흡수작용에 관여하게 되면서 脾氣의 運輸散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79) 臟腑相關關係는 太陰經과 太陽經, 少陰經과 少陽經, 厥陰經과 陽明經의 조합처럼 開經은 開經끼리, 關經은 關經끼리, 樞經은 樞經끼리 서로 相關關係를 가지고 동시에 手三陰經은 足三陽經과 足三陰經은 手三陽經과 相關關係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脾-小腸은 開經으로서 臟腑相關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80) 脾가 물질의 공간적인 분포에 있어서 量의 변화(陰陽에 대한 변화)를 조절하는 반면, 肝은 물질의 時間的인 추이에 따른 質의 변화(剛柔에 대한 변화)를 조절한다. 開關樞理論에 의하면, 脾는 開放系에 속하여 공간의 확장이 가능하므로 물질의 量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肝은 閉鎖系에 속하여 한정된 공간 내에 담겨진 물질의 質의 상태를 시간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 脾에 의한 量的인 공간 변화작용을 運布라고 하고, 肝에 의한 質的인 시간 변화작용을 疏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運布와 疏泄의 기능은 肝脾 상

生舊除의 과정에서 舊除라고 하는 작용은 關門을 지나 大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新生은 아마도 肝에서 가장 왕성하게 작용<sup>81)</sup>할 것이다. 肝의 기능에 있어서 罷極之本<sup>82)</sup>이라고 한 것<sup>83)</sup>은 肝을 통해 生氣가 蘇生하기 때문일 것이다<sup>84)</sup>. 이렇게 新生과 舊除의 기능은 肝과 大腸을 중심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經脈의 분포로 볼 때 肝經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捕食者와 被食者의 대치상황과 같이 긴장상태에서 작용하는 經脈이므로 大腸의 진화적 의미와 상통하게 된다. 大腸은 被食者가 捕食者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몸을 변을 탈수시켜 固形化함으로써 냄새가 멀리까지 퍼져나가 捕食者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은 수분과 일부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날아다니는 조류의 경우는 大腸이 거의 없다.<sup>85)</sup> 결국 肝과 大腸은 긴장과 대치상황에서 그 기능이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곳이다.

關門은 小腸과 大腸이 만나는 곳<sup>86)</sup>으로 小腸이라

호간에 共助를 이루고 있는데 運布는 津液을 四末로 끌고 루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疏泄은 이러한 津液을 그 때에 맞게 적절한 속도와 방향으로 보낼 수 있게 調節(예를 들면 긴장할 때 근육으로 빠르게 혈류의 양을 늘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줄이는 것 등을 말한다)하는 지휘자의 역할(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을 한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가 脾라면 지휘자는 肝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호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肝脾不調가 생긴다.

- 81) 肝은 生長收藏에서 生을, 四時에서는 봄을 주관하며 木에 속한다.
- 82) 罷極에서 罷는 풀어나다, 쉬다는 뜻이며 極은 극단의 상태를 뜻하므로 극단의 상태를 풀어나어 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 8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6 : 『素問六節藏象論』“肝者, 罷極之本, 魂之居也.”
- 84) 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11)54 : "간은 체내에서 가장 대사율이 높은 조직이다. 특히 간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대사는 몸의 다른 부위에 의해서는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간의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살아가기 힘들다." 그러므로 간의 이러한 대사 작용으로 몸 전반의 生氣가 蘇生하는 것이다.
- 85) 타노이 마사오. 3일만에 읽는 몸의 구조. 서울. 서울문화사. 2003. p.92 :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분되는 약 1.5m 길이의 대장은 포유류에서 진화한 장기라고 한다. 새나 물고기에는 대장이라 할 것이 거의 없지만 물에서 사는 동물은 배설물을 흘리면 적에게 추적되어 잡아먹힐 위험이 있으므로 배설물을 모아두는 대장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고 하는 자기 영역과 大腸이라고 하는 외래 기생체가 공생할 수 있는 영역의 갈래지점이다. 肝은 小腸에서 흡수된 영양분과 大腸에서 흡수한 수분을 유입하는 곳이므로 大腸과 小腸이 만나는 부위를 주관한다고 볼 수 있다. 肝은 將軍의 官<sup>87)</sup>에 해당하며 그 性이急한데 이러한 肝이 병들면 善潔하게 된다고 한 것<sup>88)</sup>은 邪氣를 물리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肝은 邪氣와 싸우는 正氣<sup>89)</sup>가 모여 있으므로 正氣는 肝의 神인 魂과 관계하여 正邪의 相爭에 주요 역할을 한다. 肝은 魂을 藏하며 밖으로는 눈으로 開竅<sup>90)</sup>하므로 事物을 分別하고 自他를 나누게 된다<sup>91)</sup>.

- 86) 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11)65 : "회맹관이 여기에 있는데 회장이 끝나는 부위에 있는 회장의 환상근이 두터워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기능은 小腸의 내용물이 천천히 大腸으로 넘어가게 함으로써 흡수가 충분히 일어나게 하며 大腸내에 있는 박테리아 등이 小腸으로 들어와 오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 87) 『素問靈樞秘典論』(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4.)에서 “肝者 將軍之官”이라고 했다. 이러한 職官은 아마도 肝과 관련된 木氣의 작용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긴장할 때 근육을 움직이고 대뇌에서 계책을 고안하도록 하는 역할 등을 포괄적으로 관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肝木은 生氣를 保藏하고 있기 때문에 生氣를 危害하는 위협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본 것인데 현대의학적으로 본다면 긴장과 불안에 의해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 주로 작용하는 생리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혈액의 흐름은 주로 근육과 머리로 집중하게 되는데 肝經은 주로 근육을 지배하고 督脈 즉 뇌와 척수로 이어진다.
- 88) 秦越人.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중화민국74. pp.98-99 : 『難經·16難』“其病爲之奈何. 然, 假令得肝脈, 其外證, 善潔, 面青, 善怒, 其內證, 臍左有動氣, 按之牢若痛, 其病, 四肢滿, 閉淋, 溲便難, 轉筋. 有是者肝也, 無是者非也.”
- 8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2 : 『靈樞·小鍼解』에서 “神者 正氣也 客者 邪氣也”라 했으므로 正氣와 邪氣의 관계는 神과 客의 관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客은 非自己的이고 자기의 自律性을 해치는 요소에 해당하고, 神은 自己的이고 自律性을 유지하게 하는 神機의 상태로 氣血과 같은 것에 해당한다. 결국 五臟은 각각 肝魂·心神·脾意·肺魄·腎志를 藏하면서 각각에 맞는 神機의 인 기능을 통해 氣血을 부리고 客에 대해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肝魂은 눈에 開竅하여 정신적으로 事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正邪의 판단을 해서 邪氣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9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0 : 『素問金匱眞言論』“東方青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藏精於肝.”

肝의 이러한 기능은 실제 肝臟의 장기 내에서 kupffer cell의 기능<sup>92)</sup>과 흡사하다. 이렇게 五臟에서는 肝이 바로 正邪를 구분하고 正氣를 바로 세우는 將軍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關門과 같이 自他の 경계 부위가 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關門에서는 乙肝을 중심 陰藏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大腸은 세균과 자신의 조직이 공생하고 있는 곳으로 세균과 찌꺼기 및 장의 상피세포 등을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자아의 正氣를 지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大腸은 피부로 그 상태가 반영<sup>93)</sup>되는데 피부 역시 腸, 肺, 腎臟과 함께 인체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關門은 小腸에서 大腸으로 이어지는 衝門으로서 그 기능을 두고 볼 때 당연히 大腸이 중심 陽腑가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결국 인체는 乙庚合金 작용을 통해 舊除의 작용이 일어나고 다시 舊除에 의해 新生長용이 촉발되어 순환하게 되므로 특히 肝은 終始를 부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戊癸合化火에 의해 생성되기 시작한 精氣는 여러 단계로 소비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殘餘物 들을 乙庚合金의 작용을 통해 배출하게 된다. 여기서 化氣한 金氣는 諸氣가 성숙된 뒤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는 血의 작용<sup>94)</sup>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邪氣의 사멸은 正氣의 생성으로 이어지지만 正氣가 허약해지면 邪氣가 득세하여 곧 질병이 생겨난다. 乙庚合金은 關門을 중심으로 결국 終始가 묶여져 있는 끈과 같이 끝없이 순환하는 血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IV. 結論

臟腑에 응용된 干合理論은 주로 에너지가 역동적으로 생성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생리적 병리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의 몸은 내적 외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는데 특히 裏部의 점막부는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변화하는 곳에 해당한다. 이 때 이러한 裏部의 부위별 변화와 臟腑와의 관계성을 추론하여 干合理論을 응용한다면 진단과 치료에 상당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실제 임상적인 적용성과 활용성 그리고 다른 이론과의 연계성 등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상에서 裏部의 점막에 해당하면서 주요 괄약근이 존재하는 咽頭, 喉頭, 賁門, 幽門, 關門의 5가지 구역과 干合理論의 관계를 고찰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裏部의 주요 괄약근이 존재하는 咽頭, 喉頭, 賁門, 幽門, 關門 등은 五行理論 중에서 干合理論에 합당한 규칙성을 가졌다.
2. 喉頭는 肺-小腸의 조절을 받으며 丙辛合化水와 관련된다.
3. 咽頭는 心-膀胱-三焦의 조절을 받으며 丁壬合化木과 관련된다.
4. 賁門은 腎-包-胃의 조절을 받으며 戊癸合化火와 관련된다.
5. 幽門은 脾-膽의 조절을 받으며 甲己合化土와 관련된다.
6. 關門은 肝-大腸의 조절을 받으며 乙庚合金과

한다고 했다. 결국 月經血을 포괄하는 모든 血은 新生長용이 중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血은 에너지 상태인 氣와는 달리 물질적인 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新生長용의 방식을 취한다.

9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57 : 『素問脈要精微論』“夫精明者, 所以視萬物, 別白黑, 審長短.”

92) 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11)54 : "kupffer cell의 주기능은 phagocytosis인데 그 대상이 바이러스, 세포나 장으로부터 빠져나온 효소들, fibrinogen유도체, 상처를 입은 적혈구, 종양세포, 박테리아, toxin 등으로 광범위하다. ...정상상태에서도 장으로부터 상당수의 박테리아가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오는데 sinusoid를 지나는 동안 kupffer cell의 강력한 phagocytosis에 의하여 99%이상이 제거된다."

9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15 : 『靈樞本藏』“肺合大腸, 大腸者, 皮其應.”

94) 唐宗海. 血證論. 臺北, 力行書局有限公司. 中華民國73. p.7 : 『血證論男女異同論』에서 “經血者, 血之餘也. 夫新生長, 天地自然之理, 故月有盈虧, 海有潮汐, 女子之血, 除舊生新, 是滿則溢, 盈必虧之徒, 女子每月, 則行經一度. 蓋所以洩血之餘也, 血主陰而下行, 所以從下洩, 而爲經血也”라고 했다. 여자는 主血하는데 月經血은 血의 나머지로써 달의 盈虧나 바다의 潮汐과 마찬가지로 新生長용의 작용을



관련된다.

### 參考文獻

1. 沈載烈編著. 命理正宗精解. 서울. 명문당. 1999. p.351.
2. 沈載烈編著. 增補淵海子平精解. 서울. 명문당. 1982. pp.18-21.
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 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29, 34, 42, 86, 92, 112, 140, 166, 213, 233, 248. pp.205-206.
4. 秦越人.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中華民國 74. pp.210-212, 265-266.
5. 李梴.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1984. p.58, 63, 85, 91.
6. 이순지. 天文類抄. 서울. 대유학당. 2006. pp.50-63.
7.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대성문화사. 1988. p.26, 50. pp.267-272.
8. 조용주. 五官과 干合. 東醫學會誌. 2000. 4(1). pp.105-114.
9. 조용주, 김진주. 영위와 기경맥의 상관성 연구.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7. 24(2). pp.1-17.
1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동양 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p.39, 50, 97, 178, 189, 194, 282, 342. pp.82-83, 119-120, 213-215.
11. 강두희. 생리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8. p.(3)1, (10)1, (11)16, 44, 59, 65, (12)6, (15)24, 25. pp.(11)54-55, (12)2-3, (15)47-74, (18)11-12.
12. 최영길. 내분비학. 서울. 의학출판사. 1994. p.239, 275.
13. 張介賓. 類經上下. 서울. 대성문화사. 1988. p.486, 584, 671. pp.207-208.
14. 조용주, 김진주. 開闔樞 기능에 관한 研究.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8. 25(1). pp.19-37.
15. 로버트 A. 윌리스, 제럴드 P. 샌더스, 로버트 J. 펄. 생물학-생명의 과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2. p.66, 193, 713, 974.
16. 권오길. 인체기행. 서울. 지성사. 2001. p.94.
17. 조용주, 김진주. 四氣五味論의 구조적 해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2005. p.11(2). pp.(11)23-33.
18.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91. p.143.
19. 타노이 마사오. 3일만에 읽는 몸의 구조. 서울. 서울문화사. 2003. p.92.
20. 唐宗海. 血證論. 臺北. 力行書局有限公司. 中華民國 73. p.7.